동물권행동 카라

보도자료

2022년 3월 23일 (수) **배포 20:00** **(배포 즉시 보도)** **(총 2매, 이미지 있음)**

담당 부서 :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

담당 : 고현선 활동가 (070-4760-1215) 신주운 팀장 (070-4760-0711)

(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.발표한 <인권보도준칙>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)

동물권행동 카라, 울진 산불 피해 현장에서 생태 복원 위한 씨앗 뿌리기와 야생동물 보호 위한 먹이주기 활동 나서

- 지난 4일 울진 북면에서 큰 산불이 발생한 이래 5차례 피해 동물 구호 활동 전개
- 지역 피해 주민과 시민 봉사자 총 30여 명이 울진읍 호월리 일대에서 생태 복원을 위한 채소 모종 380본 심기, 씨앗 50만립 뿌리기, 야생동물 먹이 100kg 공급

○ 동물권행동 카라(이하 카라)는 오는 24일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인 호월리 일대에서 시민 봉사자, 지역 피해 주민과 함께 총 30여 명이 생태 복원를 위한 씨앗 뿌리기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활동을 진행한다.

○ 지난 4일 울진 북면에서 큰 산불이 발생한 이래 카라는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, 농장동물 등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울진산불 피해현장 구호 활동을 진행해 왔다. 구호 활동 중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꿩 사체 사진을 제보받았으며, 그 외에도 산불로 인해 서식환경이 파괴되며 직접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을 위해 이번 6차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그동안의 울진 산불 피해현장 구호 활동을 마무리한다.

*** 카라의 울진 산불 피해현장 구호 활동**

- 1차 지원 : 울진군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대피처 마련 활동
- 2차 지원 : 울진 시민 대피소 방문 조사 후 반려동물 사료 지원 및 화재 피해 동물 구조 진행
- 3차 지원 : 추가 반려동물 사료 지원 및 화재 피해 동물 구조 진행
- 4차 지원 : 화재로 죽은 소, '소원'을 포함한 사망한 동물 장례 진행 및 화재 피해 동물 구조 진행, 울진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상화 지원
- 5차 지원 : 화재 피해 주민의 마당개 환경 개선 지원
- 6차 지원 : 생태 복원을 위한 모종 심기, 씨앗 뿌리기 및 야생동물 먹이 공급

○ 6차 구호 활동으로 카라는 시민들과 함께 24일 오전 11시 30분경 울진읍 호월리 산99번지에 집결해 인근 산불 피해 현장에 방풍, 더덕, 산천도라지 모종 총 380본, 씀바귀, 개똥쑥, 더덕 등 채소 씨앗 50만립을 심고 야생동물 먹이 100킬로를 공급할 예정이다. 이날 봉사자들의 반려견도 참가해 씨앗과 곡물이 든 가방을 매고 숲을 산책하며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.

○ 카라 관계자는 "산불로 인해 산에서 살던 모든 생명이 피해를 입었다. 오늘의 활동이 다시 숲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, 먹고 자고 쉴 삶의 터전이 사라진 야생동물에게도 작게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."고 전했다.

[참고 이미지 1] 산불 피해 현장에서 발견된 꿩 사체 사진

[참고 이미지 2] 웹자보

울진 산불현장 동물구호
야생동물을 위한 씨앗뿌리기
캠페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
일시: 3월 24일(목) 11:30 (약 3시간 소요)
장소: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호월리 산99
내용: 모종 심기, 씨앗 뿌리기, 야생동물을 위한 열매 뿌리기
* 반려견 동반 가능합니다.
* 씨앗과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.
KARA